

# 나와 모두의 삶을 지키는 '양성평등 백신' 예방접종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작<요약>

평소 '양성평등'에 문외한이었던 나는 육사 훈육관이자, 양성평등 지도보좌관 역할을 맡게 되자 많이 막막했다. 그리고 함께하는 생도들의 의식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 놀랐다. 그들은 지금껏 '양성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문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로만 여겼고, 무언가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선배 장교로서 '생도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위해 스스로 시곱바늘을 멈춰 '성(性)'을 숨긴 그 선택이 너무 안타까웠다.

나는 멈춰버린 그들의 '성' 시곱바늘을 움직이기 위해 고정관념을 타파하려고 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 생도들에게 기존 교육방식(단방향 전달)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으면서도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포용력을 넓히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른바 3단계에 걸친 '양성평등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문제를 표면에 노출하고, 치열한 의견 교환으로 합치점을 찾아, 발생 가능한 갈등과 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먼저 첫 단추(1단계)는 생도대에서



박 현 우 소령  
육군사관학교 생도대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병원체)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위원 생도의 선제적 상담 활동과 다양한 공모전 등으로 잠재된 이슈를 발굴·공론화했다.

다음 단계(2단계)로, 식별된 이슈(병원체)를 생도대에 주입하기 위해 각자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만들었다. 일명 양화대교(양성이 화합하는 대화와 교류의 장)라 불리는 소그룹 주제 토의로 활발한 의견교환을 했고, 주요 내용은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해 전 생도와 공유했다.

마지막으로(3단계) 백신을 맞고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기까지는 바이러스와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듯, 생도대에서 식별된 이슈의 의견 합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했다. 모든 생

도가 언택트 방식으로 참여하는 '양성평등 대토론회'를 열어 치열하게 토론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덧 면역력이 양성해진 생도대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시곱바늘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최근 군내 성 관련 사고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고의 후속 조치로 각종 특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는 지금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가 생각해볼 때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향후 발생할 갈등과 위험에 빠르게 대처 가능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마치 생도대가 '양성평등 백신'을 접종했던 것처럼 말이다.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집단의 문제를 정확히 끌어내고, 그 문제에 진심 어린 공감대와 합치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 생도대가 변화한 것처럼 다른 많은 부대에서도 누군가의 시간이 막힘 없이 흘러가도록 지켜주는 작은 영웅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나를 바꾼 그때 그 의무실



여 민 정 중사(진)  
육군6보병사단

꿈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 '군인이 될 거예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고등학교 시절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학교 대표로 군 문화축제에 참여해 전차를 비롯한 장비와 능률한 군인들을 보며 '역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과 군 장병이 있어야 하는구나'라고 감탄했다.

그러다 우연히 의무 관련 부스를 보게 됐다. 전우와 시민들을 치료하는 의무관의 모습에서 총과 전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받았다. 조용하지만 굳건하고, 섬세하면서도 우직한 '그때 그 의무실' 풍경은 나의 인식과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그때의 경험이 나를 의무부사관으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무부사관으로 복무하는 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가와 부대를 위해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어느 날, 문득 어버이날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그날 어머니가 암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가족을 지키는 것처럼 국가를 지켜라'라는 선임의 말을 가슴에 새긴 나였다. 임무를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밀려드는 업무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내 도움이 필요한 다치고 아픈 전우들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인은 군을 우선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 순간은 그저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그날은 군 생활을 하면서 심적으로 가장 힘든 하루였다.

퇴근 후 생각에 잠겼다. 내게 어머니는 나라와 같은 큰 존재였다. 그런 어머니가 병마와 싸우고 계신 사실이 형용할 수 없이 힘들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없는 내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내게 울림을 준 그때 그 의무실의 선배 전우들은 결코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여기는 군인들이 아니었음을 말이다. 부대와 전우를 위한 의무 업무를 책임지는 응급구조부사관으로서 열성을 다하는 것이 곧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어머니의 완치 판정을 알리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 한구석 깊이 박혔던 가시가 뽑힌 후련한 기분이었다.

난 요즘도 이따금 조용하지만 강인했던 그때 그 의무실 풍경을 생각한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언의 메시지'를 나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의무인'으로서 겪었던 연단을 그들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때의 기억은 오늘도 내일도 나를 묵묵히 책임을 다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앞으로 더 당당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난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걷는다.

# 세대의 벽을 넘어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이가 든 세대'. 기성세대의 사전적 정의다. 신세대는 '새로운 세대, 흔히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한때는 신세대였고,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된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군 경력 15년 이상인 'X세대' 현역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신세대 장병이었을 것이며, 군 경력 15년 미만 장병들에게는 기성세대로 보일 것이다. 군 복무 14년 차인 나 역시 한때는 신세대 장병이었으나 어느덧 기성세대의 일원이 돼가고 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사회에 발을 디딜 때 '요즘 것들'로 불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새로운 세대에 대해 '요즘 것들이란'이라고 얘기한다. 어느 시대건 신세대는 존재했다는 것은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세대'라는 말은 1980년대 후반 'Generation-X'라는 소설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며, 1996년에 나온 한 가요의 제목은 '신(新)인류의 사랑'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더구나 최근 10년은 각종 기술 발달



정 원 정 소령  
해군군수사령부 조달처

로 사회 전체에 혁신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간극은 10년 전보다 훨씬 크다.

얼마 전 부대에서 'MZ세대 장병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서 느낀 점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더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전 세대는 신세대를 이해하기보다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다. 이에 반해 지금의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가 잘못됐다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받은 순회교육은 그런 노력의 하나였다. 물론 한 번의 교육이 개개인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진 못하겠지만 잠시라도 후배 세대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는 것

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 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더 나은 조직을 위해 한 발 내딛는 것이기 때문이다.

Z세대가 포함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X·M세대는 Z세대가 군 조직에 적응하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순 지휘나 명령이 아닌 당위성을 말해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착수하려는 업무가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해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줘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이 먼저 본연의 임무·역할을 고민하고,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대'라는 단어는 연속적인 시간을 임의로 나눠 서로 간에 벽을 세운다. 1984년 12월 31일생과 1985년 1월 1일생은 X·M세대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같은 시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세대'라는 말로 서로를 구분 짓지 말자.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라온 사회적 분위기를 인정하며 마음을 열어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해군'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닐까?



##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카툰, 사진, 그림, 캘리그래피  
분량·크기: 자유 (산문·시·독후감·편지는 공백 포함 1700자 이내)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양식 이용해 이메일(장병은 부대 정통 계통 문의)로 제출  
기타: '병영의 창'에 게재된 분에게는 매일 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문의: 군 전화 947-3732(육군), 3736(해군·해병대), 3742(공군), 일반전화 02-2079-3718